

## 성인 비장애형제자매의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형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안 다 혜

전남대학교 / 학생

정 주 리<sup>†</sup>

전남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성인 비장애형제자매를 대상으로 과거 부모화 경험이 현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부모화 경험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함께 부모화 경험, 삶의 만족도, 장애형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장애형제를 가진 성인 비장애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200명(남성 62명, 여성 138명)의 자료를 SPSS Macro Process를 이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인 비장애형제자매의 삶의 만족도에는 부모화 경험이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화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장애형제 스트레스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비장애형제자매는 과거의 부모화 경험이 현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과거 부모화 경험은 장애형제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담 현장에서 성인 비장애형제자매를 상담할 경우, 그들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왔고, 장애형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부모화 경험과 장애형제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자신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심도 있게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성인비장애형제자매, 부모화, 삶의 만족도, 장애형제 스트레스

<sup>†</sup> 교신저자 : 정주리,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Tel: 062-530-2345, E-mail: jjoeng@jnu.ac.kr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가족이란 단순히 가족구성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므로 한 가정에 장애아가 태어났을 경우 장애아의 개인 문제가 아닌 가족의 공동 문제가 되며, 이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부담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진다. 장애형제자매(이하 장애형제)가 있는 가족의 경우, 비장애형제자매(이하 비장애형제)는 장애형제의 형제자매이자 친구이자 보호자의 역할을 하며 가족으로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일생에 걸친 중요한 동반자가 된다(양호정, 신준섭, 2015; 전혜인, 2008). 특히,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장애형제에 대한 비장애형제의 책임은 커지고 있다(조민경, 강영심, 손성화, 2019). 그리고 현대 의학기술의 발전과 복지의 향상으로 장애인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성인기의 비장애형제는 부모 사후에 장애형제를 부양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Greenberg, Seltzer, Orsmond, & Krauss, 1999). 따라서 부모의 노화나 사망 후, 장애형제에 대한 보호와 책임이 자연스럽게 비장애형제에게 전가되어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의 생애 전반에 걸쳐 책임지는 경우도 늘어났다(김다혜, 한재희 2016; 노민희, 김은경 2018). 실제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 다수가 자신이 돌봄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비장애형제가 장애자녀의 돌봄을 제공하길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오수경, 장숙, 2012; Heller & Factor, 1991).

비장애형제의 장애형제의 돌봄 부담 증가는 통계자료로도 확인이 되는데 재가 지적장애인의 경우 보호수발인이 형제자매인 경우, 1995년 4.5%에서 2017년 8.2%로 약 1.8배의 증가를 보였다(보건복지부, 1995, 2017). 비장애형제의 장애형제 돌봄 시간을 살펴보면 비장애

형제는 평일은 하루 평균 1.68시간, 주말은 평균 3.16시간 정도 장애형제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복천, 김유리, 2018). 비장애형제들이 장애형제에 대해 느끼는 돌봄 부담은 이들에게 내현화된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Barlow & Ellard, 2006). 비장애형제가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존재하지 않으나 장애형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은 성인 비장애형제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선애, 2011). 이는 장애형제로 인한 일상생활 경험이 비장애형제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환경적 상황과 생활 경험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상향이론(Diener, 1984)을 바탕으로 비장애형제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비장애형제는 장애형제에 대해 과도한 책임감으로 느끼며 자신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다혜, 한재희, 2016).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장애형제를 둔 17세 이상의 비장애형제들은 장애형제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장애형제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선, 1988). 특히, 성인 비장애형제들은 시기적으로 원가족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시기임에도 장애형제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높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며(노민희, 김은경, 2018), 장애형제를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책임지려 하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주도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장애형제를 위한 선택과 결정을 수행하며 성인으로 자신의 삶에도 여전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다혜, 한재희, 2016). 또한, 대학생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이 장

애형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장애형제에 대해 많이 관여할수록 우울과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Grossman, 1972). 이들은 성인이 되면서 부모가 장차 장애형제를 돌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더욱 하게 된다(김효숙, 2003). 그 결과, 비장애형제들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Emmons & Colby, 1995; Kaytz & Campbell, 1994). 민혜진과 정원철(2016)은 장애가족들은 일반가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높은 이혼율, 우울, 불안, 근심, 좌절 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이들을 돌보며 과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비장애형제 역시 장애형제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

성인기 비장애형제의 장애형제에 대한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데 다른 형제자매와 관계와는 달리 장애형제와 비장애형제의 관계는 비대칭적인 경향이 있다(Stoneman, Brody, Davis, & Crapps, 1988). 이는 부모가 장애형제를 돌보는 것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애형제를 돌보아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대칭적 관계가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인다(Stoneman, 2001). 또한, 부모가 자녀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해주지 못하였을 때 자녀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부모를 보호하는 역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Byng-Hall, 2002). 이러한 비대칭적 관계는 장애형제를 돌보는 상황에서 비장애형제에게 부모와 같은 역할이 주어지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부모화(parentification)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부모화란 부모가 자신의 양육자역할을 자녀

에게 기대하고 자녀는 일정 부분 실제 부모의 역할을 맡아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구성원을 보살피게 되어 부모-자녀의 역할 역전을 의미한다(Kupermic, Jurkovic, & Casey, 2009). 즉,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발달단계에 필요한 욕구를 억압하면서 가족들에게 부모 역할, 친구 역할, 배우자 역할, 동반자 역할 등의 여러 역할들을 내면화하여 장기간 동안 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Chase, 1999; Jurkovic, 1997). Jurkovic(1997)은 부모화를 책임의 기간과 범위에 따라 긍정적 측면의 ‘건강한 부모화’ 및 ‘적응적인 부모화’와 부정적 측면의 ‘과괴적인 부모화’ 및 ‘유아화’로 나누었다. 긍정적인 측면의 부모화의 경우, 부모화의 시기가 연령에 맞고 할 수 있는 단계라면 성인기에 미리 수행할 역할을 배우며 자신의 가치감을 높이는 사회적 기술이 향상되어 발달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Walsh, Shulman, Bar-On, & Tsur, 2006). 특히 집단주의와 가족 중심적 가치관이 강조되는 한국 사회의 경우, 부모화가 적응적이며 바람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하였다(조은영, 정태연, 2004). 그러나 부정적 측면의 부모화의 경우에는 질병이 있거나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포함하여 알코올 가정, 빈곤가정, 일중독 또는 맞벌이가정, 편부모, 재결합가정, 이혼 및 별거 가정, 아동학대 가정, 사회적 관계가 없는 가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며(Jurkovic, 1997) 부모화된 자녀일수록 소외감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 이들의 주관적 삶의 질이 일반자녀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다(조은영, 정태연, 2004).

부모화된 자녀가 보살피는 대상은 형제자매에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가족의 역동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선진, 2013). 그런데 비장애형제의 경우 과도한 부모화를 경험하여 자신 역시 돌봄을 받고 싶으나 가족의 암묵적인 기대로 가족에 대해 높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최복천, 김유리, 2018). 또한, 부모화를 통해 가족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가족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비난과 같은 감정들을 경험한다(공인원, 홍혜영, 2015; Wells & Jones, 2000). 그뿐만 아니라 부모화 된 자녀들은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표정 및 반응에 대해 과도하게 의식하며(문비, 2006), 나아가 내적인 우울과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최명선, 강지희, 2008). 또한, 부모화된 자녀들은 가족 내에서 삼각화(triangulation) 경향성을 높게 보이며 부모 및 가족의 일에 더 개입하는 경향성이 있고(Bowen, 1978), 부모의 정서에 융합되어 부모의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소외감으로 자신의 주관적 삶의 질이 일반가정의 자녀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다(조은영, 정태연, 2004). 어린 나이에 부모를 보호하고 남을 배려하는 부모화를 발달시킬수록 자신이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포기하거나 억압하므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조은영, 정태연, 2004).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유추해볼 때 비장애형제자매 역시 어린 시절부터 내재화된 부모화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청소년 자녀의 부모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문비, 2006), 청각장애부모의 건청 자녀는 부모의 수화통역을 하며 부모역할이 전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uchino,

1990). 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비장애형제들의 부모화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화 경험은 이들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장애구성원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의 부모화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연진, 2011).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성인 초기 비장애형제들이 부모화 경험을 많이 할수록 정서 표현 양가성을 경험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손주희, 박주희, 2019). 구체적으로 이들은 가족 내에서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여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을 돌보는 역할을 많이 맡게 될수록 자신의 정서표현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이처럼 비장애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과도한 부모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부모화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매우 드물다. 장애 부모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수에 비해, 장애형제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였고 부모의 부재 후, 장애형제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성인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부모화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국내 비장애형제에 대한 상담연구 동향분석에 따르면 1999-2015년을 기준으로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한 논문은 39편에 불과하며, 39편 중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4편(10.3%) 밖에 되지 않아 성인 비장애형제자매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이경순, 윤채영, 2017). 국외연구 역시 성인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3편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비장애형

제가 성인이 되어 시기적으로 부모의 노화 및 사망으로 인한 부재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자신들의 역할이나 책임이 증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들의 부모화 수준은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부모화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를 돌보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부모화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형제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경우, 부모화는 비장애형제의 삶의 만족도에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비장애형제 자매는 어린 시절부터 장애형제를 돌봐야 하는 책임감과 압박감을 경험하며 스트레스를 받지만, 장애형제를 돌보느라 고생하는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게 된다(양유리, 2015). 또한, 장애형제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신도 장애를 가질까봐 걱정하거나, 자신은 장애가 없는 것에 대해 장애형제에게 죄책감을 갖기도 하며, 장애형제를 부끄러워하며 친구들에게 숨기기 위해 회피하거나 부모에게 말하지 못할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이윤화, 권진옥, 2002). 이러한 장애형제에 대한 스트레스는 부모화 경험이 비장애형제의 삶의 만족도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반대로 장애형제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경우, 비장애형제는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의 존재로 오히려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정신지체아

가정의 비장애형제는 일반가정에서 성장한 아동들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은순, 1994). 또한,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높고(신혜정, 2000), 장애형제에 비해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스스로 장애형제의 몫까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보이며 성숙한 태도를 나타냈다(김귀자, 2002). 따라서 장애형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을 경우에는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기에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 돌봄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부모화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성인 비장애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장애형제로 인해 가족 내에서 부모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고, 성인이 되어도 부모와 같은 역할이 끝나지 않고, 부모의 노화 및 사망으로 인해 부모보다 오랜 시간을 장애형제와 함께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비장애형제의 부모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장애형제 스트레스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인비장애형제의 가족 환경적 특성에서 기인한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성인비장애형제의 부모화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성인비장애형제의 부모화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장애형제 스트레스에 의해 조절되는가?

##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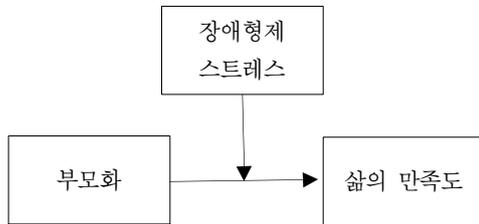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성인으로 설정하였으나 자료수집과정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라는 특성으로 인해 20~40대만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 59명(29.5%), 30대 119명(59.5%), 40대 22명(11%)이었다. 장애형제의 현재 부양자는 어머니 137명(68.5%), 아버지 35명(17.5%), 본인(비장애형제) 16명(8%), 조부모 5명(2.5%), 기타 3명(1.5%), 시설 4명(2%)이었다.

##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3.0과 PROCESS Macro 3.3을 활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값을 살펴보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장애형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을 표준화한 뒤에 단순조절모형(model 1)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준화는 모든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구하여 원자료에서 평균을 뺀 후, 표준편차 값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장애형제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유의성에 차이가 있는 알아보기 위하여 Johnson-Neyman검정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 사례 수는 Hayes(2017)의 제안에 따라 10,000개로 설정하였다.

## 측정 도구

### 부모화

비장애형제의 부모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Jurkovic, Thirkield과 Morrell(2001)이 개발하고 조은영, 정태연(2004)이 번역, 이선영(2017)이 수정 및 보완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가족 돌봄 의무 척도(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를 사용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C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승인번호: 1040198-200520-HR-052-02). 연구대상자는 만 19세가 넘은 성인으로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장애형제를 가진 비장애형제로 온라인 게시판(온라인 장애가족 카페, 장애가족 커뮤니티, 장애인생활시설, 장애형제를 가진 비장애형제자매모임 등)을 통해 모집하여 연구를 소개한 후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207명의 자료 중에서 무성의하게 응답한 7부를 제외하여 20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200명 중 남성 62명(31%), 여성 138명(69%)이었고, 장애형제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38명(19%), 자폐장애 16명(8%), 학습장애 20명(10%), 청각장애 16명(8%), 기타장애 8명(4%), 중복장애 2명(1%), 지체장애 16명(8%), 발달장애 41명(20.5%), 뇌병변장애 22명(11%), 언어장애 19명(9.5%), 신장장애 2명(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층의 대상을

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이 가정 내에서 집안 일을 돕는 등 육체적인 업무를 하는 정도나 가족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도, 본인이 가정 내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정도 등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과거 경험을 묻는 과거형과 현재의 경험을 측정하는 현재형으로 나누어진다. 현재형 질문지는 현재의 부모화 경험만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성장과정에서 부모화 경험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 비장애형제자매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부모화 경험이 현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하여 과거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과거형 질문지는 총 30개 문항으로 ‘나는 가족을 위해 장을 자주 보았다.’, ‘나는 종종 내가 가족의 중재자라고 느꼈던 적이 많았다.’, ‘부모님은 내게 잘 해주셨지만, 막상 내가 필요할 때에는 부모님께 의지할 수 없었다.’등을 포함하여 과거 부모화 경험에 대해 측정할 수 있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 내 부모-자녀 간의 역할이 역전되어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맡은 경험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urkovic, Thirkield과 Morrell(2001)의 연구에서 보고한 신뢰도 계수는 .74~.86이며, 손주희, 박주희(2019)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83로 나타났다.

#### 삶의 만족도

비장애형제가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조명환, 차경호(1998)가 번안한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의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비교적 짧은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 중 높은 신뢰도를 나타낸다. 이 척도는 5문항으로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내 삶의 조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등 문항을 통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에 대해 알 수 있다. Diener 등(1985)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87이었으며,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2005)의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82이다.

#### 장애형제 스트레스

Holroyd(1974)가 장애가 발달장애 아동의 가족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285문항의 QRS척도(The Questionnaire on Resources and Stress)를 Crnic, Friedrich, Greenberg(1983)이 52문항으로 단축한 것을 정청자(1988)와 정은순(1994)이 번안한 것 중에서 자녀의 스트레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36개 문항을 추출하여 재구성한 박영순(2002)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장애가족 구성원 중,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에게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장애 형제의 특성 요인, 가정생활, 개인생활, 학교생활 등 4개 요인으로 나뉘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대상에 적절한 문항으로 가정생활과 개인생활의 요인만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우리 가족은 장애형제 때문에 너무 피로하다.’, ‘가족이 모두 외출할 때 장애형제로 인해 나는 신경이

예민해진다.’, ‘나는 가끔 장애형제가 없는 다른 사람이기를 원한다.’ 등의 문항을 통해 장애형제 스트레스에 대해 측정할 수 있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영순(2002)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 결 과

###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주요 변인 원점수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모든 변인에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에 비추어(West, Finch, & Curran, 1995) 자료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했다고 보았다. 표 1에 보이듯이 삶의 만족도는 부모화 경험( $r=-.21, p<.01$ ), 장애형제 스트레스( $r=-.31, p<.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화 경험과 장애형제 스트레스 간의 관계( $r=.06, p>.05$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장애형제 스트레스 조절효과 검증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문제 1인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와, 단순조절모형을 통해 연구문제 2인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장애형제 스트레스에 의하여 조절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한 것처럼 부모화 경험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17, p<.01$ ). 또한,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25, p<.01$ ), 장애형제 스트레스와 부모화 경험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형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b=.20, p<.01$ ), 상호작용항이 추가되면서 설명량인  $R^2$ 은 .05만큼 증가하였다.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부모화 경험	장애형제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부모화			
장애형제 스트레스	.06		
삶의 만족도	-.21**	-.31**	
평균	3.14	3.45	2.85
표준편차	.411	.77	.83
왜도	-.27	-.11	.32
첨도	-.69	-.77	-.71

주. \*\* $p<.01$

표 2. 부모화 경험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장애형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변인	$\beta$	SE	<i>t</i>	<i>p</i>
부모화 경험	-.07	.02	-3.04	.003
$F(1, 198)=9.25, p<.001, R^2=.05$				
부모화 경험	-.19	.07	-2.93	.004
장애형제 스트레스	-.30	.07	-4.58	.000
$F(2, 197)=15.60, p<.001, R^2=.14$				
부모화 경험	-.17	.06	-2.67	.001
장애형제 스트레스	-.25	.07	-3.81	.002
부모화 경험 X 장애형제 스트레스	.20	.06	3.42	.008
$F(3, 196)=14.87, p<.001, R^2=.19$				

장애형제 스트레스 조절효과의 유의성 검증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실시한,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대로 조절변인인 장애형제 스트레스 값을 세 수준(-1SD, Mean, +1SD)으로 설정하고,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표본 수 5,000개를 추출하여 단순회귀선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저집단(-1SD)과 평균집단(M)에서는 신뢰구간 95%이내에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Hayes, 2017),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집단(+1SD)에서는 0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장애형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좀 더 세밀히 분석하고자 장애형제 스트

레스 평균 집단(M)과 저집단, 고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그림 2에 나타난 것처럼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평균인 집단에서 낮은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모화 경험의 영향이 더욱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장애형제의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평균인 집단에서는 부모화 경험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서는 부모화 경험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형제 스트레스 조절효과 해석을 위한 상호작용 탐색방법으로 단순 기울기 분석을 한 후, 추가적으로 Johnson-Neyman에 의한 유의미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단순 기울기 분석은 특정 값을 연구자가 임의로 선

표 3.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장애형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검증

조절변인	수준	$\beta$	SE	<i>t</i>	<i>p</i>	LLCI	ULCI
장애형제 스트레스	-1SD	-.37	.08	-4.48	.000	-.53	-.21
	M	-.17	.06	-2.67	.008	-.30	-.05
	+1SD	.02	.09	.24	.808	-.16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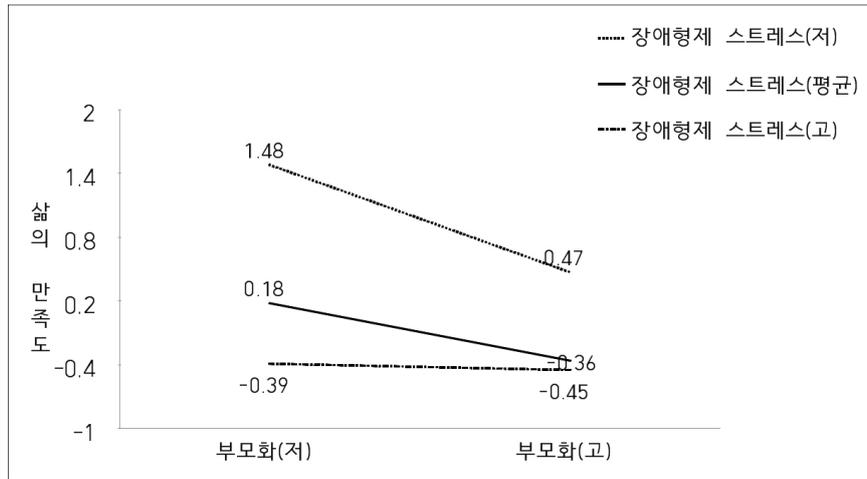


그림 2. 장애형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택하기에 어떤 값은 설정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기에(이형권, 2016), 조절변인의 전체 구간 중 어떤 부분에서 종속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 상세히 알기 위해 Johnson-Neyman에 의한 유의미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Johnson-Neyman에 의한 유의미성 검증 결과(Preacher, Rucker, & Hayes, 2007), 장애형제 스트레스 수준의 표준화 값이 .0841 이하일 때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집단에서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성인비장애형제의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장애형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 결과, 비장애 형제들의 과거 부모화 경험은 현재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이 된 비장애형제가 성장할 때 가족 관계에서 부모화를 많이 경험할수록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인 초기의 비장애형제의 부모화 경험을 살펴본 손주희와 박주희(2019)는 비장애형제들은 부모화 경험으로 인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거절하지 못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비장애형제의 부모화 경험의 부정적 결과는 성인 초기뿐만 아니라 30대, 40대에서도 삶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비장애형제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모화 경험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우울, 수치심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공인원, 홍혜영, 2015; 조은영, 정태연, 2005; 최명선, 강지희, 2008)와도 일관된다고 여겨진다.

성인비장애형제의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조은영, 정태연(2004)의 연구에서 가족원의 질병, 장애, 사망, 부모의 갈등, 융합, 별거 및 이혼 등과 같은 가족 스트레스를 경험한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 자녀들보다 부모화 경험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가족원의 장애와 같은 요인은 부모화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가족 스트레스가 높은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책임과 무게를 일부 떠맡아 자녀의 부모화 경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된다. 따라서 비장애형제는 장애가 있는 형제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은 돌봄을 받는 사람이 아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가족에 대해 높은 책임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최복천, 김유리, 2018).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가족 내에서 희생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부모화 경험을 하며 자신의 정서에 대해서는 억압하고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수준이 높을 수 있다(손주희, 박주희, 2019). 다시 말해 비장애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며 다른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우선시하며 타인을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고(손주희, 박주희, 2019; 최복천, 김유리, 2018) 그 결과,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단순조절모형 결과, 비장애형제의 장애형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장애형제의 현재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화 경험과 장애형제 스트레스 간의 상호작용항이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화 경험

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장애형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장애형제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드물었지만,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에 대해 많이 관여할수록 우울과 불안이 높아지며(Grossman, 1972), 장애형제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 및 갈등이 심화될수록 비장애형제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Emmons & Colby, 1995; Kaytz & Campbell, 1994)와 일치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비장애형제는 장애형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성인이 되어도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장애형제를 책임지려 하며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다혜, 한재희, 2016), 본 연구결과에서도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자신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장애를 가진 형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장애형제의 삶의 만족도를 낮춘다기보다는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장애형제로 인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가 비장애형제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여겨진다.

셋째, 단순 기울기 분석과 Johnson-Neyman에 의한 유의미성 검증을 통해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장애형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는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평균이거나 낮은 집단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낮거나 평균인 집단에서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지만,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는 부모화 경험 정도와 관계없이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부모화 경험과 장애형제 스트레스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화 경험이 크다고 해서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증가하거나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높다고 해서 부모화 경험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즉, 두 변인은 서로 관련이 없으나, 장애형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지 않은 경우,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하며, 부모화 경험이 적을 때보다 많을 때 유의하게 더 낮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평균수준일 때보다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형제 자체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가 높지 않을 경우, 비장애형제에 대한 부모의 역할기대, 부모의 양육태도가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가족,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고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처전략을 더 사용한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덕, 2010). 따라서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낮을 경우, 만약 가족이 자신에게 과도한 돌봄의 부담을 준다면 비장애형제의 삶의 만족도는 이러한 부모화 수준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부모가 비장애형제에게 장애형제를 잘 돌봐야 한다는 식의 부담을 주는 것은 오히려 비장애형제와 장애형제의 관계를 나빠지게 만들어 적대적인 형제관계를 유발하고, 비장애형제의 스트레스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정희, 박중규, 2007). 즉, 가족 내에서 비장애형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나 기대는 비장애형제의 장애

형제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장애가족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동과 학령기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이경순, 윤채영, 2017) 그동안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였던 성인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데 의의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성인 비장애형제는 비장애형제는 장애형제로 인해 성장기에 여러 역할을 부여받고 책임감을 가지며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진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손주희, 박주희, 2019)를 바탕으로 이들의 심리적 특성, 특히 부모화 경험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것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를 통해 비장애형제의 장기화된 부모화 경험은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할 시기에도 여전히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담현장에서 비장애형제를 내담자로 만날 경우 어린 시절 부모화 경험 정도를 탐색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내면화된 신념이 무엇이며, 그러한 부모화 경험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장애아 어머니의 정서는 장애아를 양육하는 상황 자체보다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 및 해석에 따라 대처방식과 심리적 적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장은희, 정영숙, 2011), 장애아 어머니와 비슷한 역할을 경험하는 비장애형제 역시 부모화 경험에 대한 평가와 해석에 따라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화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가

장애형제 스트레스에 따라 조절됨을 확인하여, 장애형제에 대해 비장애형제가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부모화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장애형제에 대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는 가족의 역동, 부모의 역할, 가족 내에서 비장애형제에게 주어지는 기대와 역할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음이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낮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비장애형제를 상담할 경우,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부담과 스트레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가족 내에서 어떤 역할과 기대를 담당했으며, 이러한 부모화 경험과 장애형제 스트레스 수준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해왔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2017)에서는 장애자녀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중 일부로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로부터 심리적인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형제와 비장애형제를 함께 양육해야 할 장애부모에 대한 교육도 의미가 있겠으나,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비장애형제를 위한 직접적인 심리적 지원 역시 필요해 보인다. 이들이 특수한 가족 상황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진다면 비장애형제의 부모화 경험을 줄고, 장애형제 스트레스를 낮추며,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담현장에서 비장애형제들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억압된 정서를 잘 다루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비장애형제의 부모

화 경험이 많을수록 가족 내에서 돌봄을 받는 사람이 아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내면화하게 되어 자신의 정서표현 욕구가 가족 내에서 맡은 희생적인 역할에 상충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억제하고 정서표현욕구에 대한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손주희, 박주희, 2019). 또한, 자신의 정서표현은 가족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자신보다는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에 몰두하면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민희, 김은경, 2018). 따라서 부모화 경험이 있는 비장애형제의 정서표현의 어려움을 상담자가 공감해주고, 이들이 자신의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해줌으로써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개인상담뿐만 아니라 집단상담 등을 통해 성인이 된 비장애형제들이 자신의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다른 비장애형제들과 나누고, 공감 받으며, 네트워크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양지형과 전상신(2020)은 비장애형제들은 성장과정에서 장애형제에게 관심과 돌봄이 집중되는 환경으로 인해 정서적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방안으로 동질성을 가진 모임을 통해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 비장애형제의 모임은 온라인 커뮤니티 및 개인적인 모임으로만 존재할 뿐, 이들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이들이 장애형제를 돌보면서 억압된 힘든 감정을 표현하고, 부모의 기대가 이해가 되면서도 버겁고 부담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비장애형제들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연구참여자들 중 50~60대는 없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연령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20~40대는 중년기에 비해 가족으로부터 분리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장애형제를 포함한 가족들에 대해 높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므로(노민희, 김은경, 2018), 상대적으로 과거의 부모화 경험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40대 비장애형제의 경우에는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50대 이상의 비장애형제의 경우는 부모님과 사별을 경험하여 가족의 역동 및 장애형제에 대한 자신의 역할의 무게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50대 이상의 비장애형제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50대 이상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장애형제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는 단일 시점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비장애형제들에게 장애형제 및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민감한 주제일 수 있으나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은 연구대상자와 연구자 간의 라포 형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비장애형제의 부모화에 대한 경험, 삶의 만족도, 장애형제 스트레스에 따른 경험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점집단면접(FGI)이나 질적사례연구와 같은 심층면접을 활용한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참여자들이 과거 시점의 부모화 경험에 대해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성인이 된 비장애형제들이 과거 부모화 경험에 대해 돌아보는 과정에서 기억의 편향이나 주관적인 해석이 더해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비장애형제가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특성을 종단연구를 통해 살펴보는 것 역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비장애형제가 과거 성장과정에서 장애형제로 인해 내면화된 부모화 경험이 장애형제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는데, 이는 장애 가족 내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인기의 비장애형제는 아동·청소년기와 달리 친구, 애인, 동료, 지인등과 같은 가족외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으며 사회적 지지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 외의 지지체계 역시 성인비장애형제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적응능력과 같은 심리적 경향성 역시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적·환경적 변인들이 성인비장애형제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참고문헌

공인원, 홍혜영 (2015). 대학생의 부모화(parentification)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

- 기불일치와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2), 21-47.
- 김귀자 (2002). 자폐성 장애아의 비장애형제자매와 일반학생의 자아개념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김다혜, 한재희 (2016). 지적장애형제를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심리적 현상. 상담학연구, 17(5), 357-375.
- 김명선 (1988). 정신지체아의 형제들이 갖게 되는 사회적, 심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김연진 (2011). 장애부모가정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김정득 (2010). 발달장애인 부모와 비장애형제의 가족적응성: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김효숙 (2003). 장애 아동의 비장애 형제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노민희, 김은경 (2018). 자폐성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성인 형제자매의 삶과 지원요구에 관한 연구. 자폐성장애연구, 18(1), 1-33.
- 문비 (2006).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민혜진, 정원철 (2016). 정신장애인 가족의 낙인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20, 65-86.
- 박영순 (2002). 정신지체아로 인한 어머니와 형제자매의 스트레스에 관한 조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보건복지부 (1995). 1995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선진 (2015).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손주희, 박주희 (2019). 성인초기 비장애형제자매의 부모화 경험이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과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3), 445-457.
- 신혜정 (2000). 자폐아동의 형제관계 및 형제자매들의 심리사회기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 양지형, 전상신 (2020). 발달장애인 형제를 둔 성인 비장애 형제자매의 정서적 경험과 지원요구에 대한 연구: 형제순위에 따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55(2), 31-60.
- 양유리 (2015). 미술치료가 장애아동을 둔 비장애형제의 우울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5(2), 107-121.
- 양호정, 신준섭 (2015). 장애형제와 함께 성장한 여성의 경험과 삶: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 중심으로. 한국정서·행동장애연구, 31(1), 17-49.
- 오수경, 장숙 (2012). 성인 지적장애인의 미래 계획에 대한 가족과 전문가들의 주관적 인식 유형. 재활복지, 16, 29-55.
- 오정희, 박중규 (2007). 장애형제관련 스트레스 요인 및 비장애형제의 자아개념수준, 부모 양육태도가 형제관계 태도에 미치는 영향. 재활과학연구, 25(2), 35-52.
-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11-225.
- 이경순, 윤채영 (2017). 비장애형제의 상담연구

- 동향 분석: 1999-2015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27, 199-220.
- 이선애 (2011). 비장애형제의 장애형제에 대한 태도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이선영 (2017). 한국판 가족 돌봄 의무 척도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의 요인구조 분석 및 타당화.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윤화, 권진옥 (2002). 장애아동형제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8, 59-85.
- 이형권 (2016). 조절분석과 조절된 매개분석 및 매개된 조절분석의 오해와 진실. *관광연구*, 31(3), 213-248.
- 장은희, 정영숙 (2011). 장애아 어머니의 긍정적 의미부여와 심리적 안녕감·돌봄 만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1051-1081.
- 전혜인 (2008). 장애아동 형제자매의 삶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9(2), 159-179.
- 정은순 (1994). 정신지체아 정상형제자매의 사아개념과 부모양육태도와의 관계. *부산의 대학술지*, 32(1), 207-221.
- 정청자 (1988). 장애아 가정의 긴장과 적응에 관한 일 연구: 어머니 대처 자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조명한,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조민경, 강영심, 손성화 (2019). 발달장애를 지닌 형제자매의 유무에 따른 비장애 중학생의 심리적 특성. *통합교육연구*, 14(2), 151-170.
- 조은영, 정태연 (2004).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43-62.
- 조은영, 정태연 (2005). 부모화된 자녀의 개인적 및 가족관계적 특성: 자기보고 및 상담을 통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33-853.
- 최명선, 강지희 (2008). 청소년의 아동기 부모화 경험이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1(1), 43-53.
- 최복천, 김유리 (2018). 성인기 장애인의 형제자매가 인식하는 형제관계 및 그 의미.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1(2), 159-183.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발달 장애인 부모교육 매뉴얼.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에서 검색.
-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 Barlow, J. H., & Ellard, D. R. (2006). The psychosocial well being of children with chronic disease, their parents and siblings: *An overview of the research evidence base.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2(1), 19-31.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Inc.
- Buchino, M. A. (1990). Hearing children of deaf parents: A counseling challenge. *Elementary School Guidance & Counseling*, 24(3), 207-212.
- Byng Hall, J. (2002). Relieving parentified children's burdens in families with insecure attachment patterns. *Family process*, 41(3), 375-388.
- Chase, N. D. (1999). *Burdened children: Theory,*

- research, and treatment of parentification*,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 Crnic, K. A., Friedrich, W. N., & Greenberg, M. T. (1983). Adaptation of families with mentally retarded children: A model of stress, coping, and family ecology.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8*(2), 125-138.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47-959.
- Greenberg, J. S., Seltzer, M. M., Orsmond, G. I., & Krauss, M. W. (1999). Siblings of adults with mental illness and mental retardation: Current involvement and expectation of future caregiving. *Psychiatric Services, 50*(9), 1214-1219.
- Grossman, F. K. (1972). *Brothers and sisters of retarded children: An exploratory study*.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 Heller, T., & Factor, A. (1991). Permanency planning for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living with family caregivers.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6*(1), 163-176.
- Holroyd, J. (1974). The questionnaire on resources and stress: An instrument to measure family response to a handicapped member.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 92-94.
- Jurkovic, G. J. (1997). *Lost childhoods: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New York: Brunner Mazel.
- Jurkovic, G. J., Thirkield, A., &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in adult children of divorc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245-257.
- Kaytz, I. M., & Campbell, J. D.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well-being: Nomothetic and idiographic tests of the stress-buffering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3), 513-524.
- Kuperminc, G. P., Jurkovic, G. J., & Casey, S. (2009). Relation of filial responsibility to the personal and social adjustment of Latino adolescents from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1), 14-22.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Stoneman, Z., Brody, G. H., Davis, C. H., & Crapps, J. M. (1988). Childcare responsibilities, peer relations, and sibling conflict: Older siblings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3*(1), 174-183.
- Stoneman, Z. (2001). Supporting positive sibling relationships during childhood.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earch Reviews, 7*(2), 134-142.
- Walsh, S., Shulman, S., Bar On, Z., & Tsur, A. (2006). The role of parentification and family

- climate in adaptation among immigrant adolescents in Israel.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6(2), 321-350.
- Wells, M., & Jones, R. (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1), 19-27.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원 고 접 수 일 : 2020. 11. 04

수정원고접수일 : 2020. 12. 30

게 재 결 정 일 : 2021. 02. 23

## **The Effects of Adult Non-disabled Siblings' Parentification Experiences on Life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Disabled Sibling Stress**

**Da-hye An**

**Ju-ri Joe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experiences and life satisfaction in adult non-disabled sibling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investigated the moderating effect of disabled sibling stress on the relationship. Online surveys consisting of parentification experience, life satisfaction, and disabled sibling stress scales were administered to adults with siblings with disabilities. Data from 200 surveys (62 males and 138 females) were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parentification experiences had a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nd disabled sibling stress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experiences and life satisfaction.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counselings. Counselors are encouraged to consider the role that the burden and stress of parentification may play in non-disabled siblings' levels of life satisfaction. Counselors are also advised to assist clients in exploring how parentification experiences and their disabled siblings stress have impacted their life satisfaction.

*Key words* : adult non-disabled siblings, parentification experiences, life satisfaction, disabled sibling stress